

숲 해설 보충 설명 자료

1. 길마가지 : 길마가지 유래는 짐을 싣거나 수레를 끌기 위하여 소나 말 따위의 등에 얹는 안장, 또는 길마의 몸을 이루는 말굽 모양의 나뭇가지' 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소나 말의 등위에 얹어 짐을 싣는 안장을 의미하는 길마는 위와 같이 생겼다. 길마에서 2개의 기본 축을 이루는 굽어진 나무의 가지를 재료로 하여 만들 때 그 나뭇가지를 ‘길마가지’ 또는 ‘길맏가지’ 라 한다. 길마가지나무가 수정하여 열매 모양이 될 때 그리고 그 열매가 성숙하였을 때를 살펴보면 길마를 만드는 길마가지(길맏가지)의 모습이 보인다 해서 이름이 붙여졌다.

또 다른 표현은 나그네가 산길을 건다가 냄새에 취해 길 가에서 길마가지 꽃향기를 맡다가 길을 막는다 하여 길마가지로 불린다는 표현도 있다.



성숙한 열매의 모양

길마가지



올괴불나무



2. 히어리 : 일본 식물학자가 1930년대 순천 송광사 부근에서 발견하여 마을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보니 '시오리' 라 불려서 그 이름이 변천되어 히어리로 불리우게 되었다.

즉, 이 지역에서는 귀한 나무가 아니라 시오리(십오리, 6km)마다 흔히 볼 수 있는데서 비롯되었다는 설.

이른 봄 연한 노란색 꽃이 햇빛에 반사될 때 하얗게 빛이 나서 우리 말 '희다'에서 변형 되었다는 설.

입춘 절기인 구정 즈음에 꽃이 피므로 한해를 연다는 의미의 '해여리' 가 점차 히어리로 발음이 변했다는 설.



3. 미선나무 : 미선나무는 매화, 목련, 생강나무 등 부지런한 봄 꽃들의 향연이 거의 끝나갈 즈음, 늦잠에서 깨어난 듯 가느다랗고 엉성해 보이는 작은 갈색의 가지에 앞보다 먼저

꽃망울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꽃이나 잎 모양이 개나리를 너무 닮아 영어 이름이 아예 흰 개나리라고 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노랑꽃이 아니라 새하얀 꽃이 피며, 개나리와는 달리 크기도 작고 피는 시기도 더 빨라 분명히 다른 집안임을 확인시켜 줍.

얼른 생각하면 아름다울 미(美)에 신선 선(仙) 정도가 떠오르는 나무이름 아닌가 싶은 미선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꼬리 미(尾), 부채 선(扇) 자를 쓰는 ‘미선’이라는 이름이 유래된 열매입니다.

옛 역사극의 궁중 연회 장면을 보면 시녀 둘이 꺾불을 맞붙여 놓은 것 같은 커다란 부채를 해 가리개로 들고 있는 장면이 흔히 나오는데 이것의 이름이 바로 미선 이다. 미선은 대나무를 얇게 펴서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물들인 한지를 붙인 것으로 궁중의 가례나 의식에 사용되었는데 20세기 초 처음 미선나무를 발견하여 이름을 붙일 때, 열매 모양이 부채를 이 부채를 닮았다고 하여 미선나무라 했다.

미선나무 열매는 꽃이 지고 처음 열릴 때는 파란색이지만, 익어 가면서 차츰 연분홍빛으로 변하고 가을이 깊어지면 갈색이 된다.

미선나무는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세계 1속 1종밖에 없는 멸종위기 희귀식물인 나무이며 자연적으로 자라는 충북 괴산과 영동, 전북 부안 등의 집단 서식지 중에서 네곳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 되고 있으나 다른 곳은 훼손되었지만 2017년도에 희귀식물명단에서 빠졌다. 번식이 잘되고 개체수가 많아 졌기 때문.



4. 귀룽나무 : 3월 하순부터 싹을 내기 시작하니 숲 속 나무나라에서 가장 부지런한 나무이다.

예부터 조상들은 이 나무가 잎이 피기 시작하면 농사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농사철 시작을 알리는 지표목 역할을 한 것이다. 경복궁과 창덕궁 등 궁궐에 귀룽나무가 많은데 농사를 중시했던 임금들이 농사철을 알기 위해 일부러 심었다고 한다.

왜 귀룽이라는 이름을 얻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구룽목(九龍木)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고 뱀나무와 생김새가 비슷한 이 나무는 가로로 줄 무늬가 있는 뱀나무는 달리 흑갈색 수피가 세로로 갈라지는데 그 모양이 마치 아홉 마리의 용이 꿈틀거리는 듯해 구룽목이라 불리게 됐다고도 하고, 키가 크고 굵게 자라는 줄기의 모습이 아홉 마리 용을 보는 것 같아 지은 이름이라고 하는데 어느 주장도 나름 나무에 걸 맞는 이름인 듯하다.

북한에서는 구름나무라고 부른다.



향긋 꽃향기와는 달리 어린가지를 꺾으면 고무 타는 듯한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는 파리들이 매우 싫어하는데, 어린 가지를 꺾어 재래식 화장실에 넣으면 구더기를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는 귀룽나무 가지의 에도 오동나무 잎이나 멀구슬 나무 잎을 재래식 화장실 구더기 방제에 사용해왔습니다. 이나무 가지를 꺾어 벌통 주변에서 흔들면 벌들이 맥을 못 추며 순해져 꿀벌 관리하기가 한결 수월하다고 합니다. 나무껍질에서 나는 정유 성분이 벌을 암전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합니다. 덤성덤성 작은 포도송이처럼 달리는 열매는 버찌와 닮았고 7월에 흑색으로 익는데 새들이 특히 좋아해 유럽에서는 이나무를 “bird cherry” 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6~7월에 흑색으로 익은 열매는 달착지근하면서도 떫은맛이 나는데 열매로 술을 담그기도 하고 한방에서는 이를 앵액이라 하여 설사와 복통, 소화작용을 돕는데 처방합니다.

5. 메타세콰이아 : 은행나무와 함께 화석나무로 유명하다.

역사가 가장 긴 나무이며 200~300만년 전에 없어진 나무로 알았지만 1941년 중국에서 4천여 그루가 발견되었고 우리나라는 1950년대에 미국에서 일본을 거쳐 들어왔다.
“물가에서 잘 자라는 삼나무”란 의미로 중국에서는 “수삼” 북한에서는 수삼나무라 부른다.



6. 느티나무 : 당산나무나 정자나무(우리나라 고목나무 1만3천 그루 중 느티나무 고목나무는 7천1백그루 우리나라 나무 중 은행나무와 함께 수령이 가장 긴 나무이다.

전북 임실 오수읍의 의로운 개(의견) 이야기 → 오수에서 멀지 않은 영천리에서 살던 김개인이라는 선비는 어느날 개를 데리고 나들이를 나갔다가 낮술에 취하여 잔디밭에서 깊은 잠에 빠졌는데 들불이 발생 주인에게 불이 다가오자 개는 가까운 연못에 들락거리며 물을 적서 주인을 구하다 지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그는 개를 정성껏 묻어주고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꽂아 두었더니 후에 지팡이에서 싹이 나오고 자라서 지금의 느티나무가 되었다는 전설이 아닌 옛 고서에 쓰여 있었고 그 나무를 개의 화신으로 여겨 “개나무”란 뜻으로 “오수” 라고 부르고 마을 이름도 오수로 바꿨다는 이야기.

지금도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기 위해 “오수를 즐기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오수가 느티나무 밑에서 잠을 잔다는 뜻이 됨.



목재로는 천마총을 비롯한 관재로서 임금을 감싸고 영생의 길을 함께한 나무이다.

건축재로서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을 비롯 국내 유명 고찰들 건물은 느티나무로 지었으며 가구재로도 유명하다.

나뭇결이 곱고 황갈색의 색깔에 약간 윤이 나며 썩거나 벌레가 먹는 일이 적은데다 무늬도 아름답고 건조를 할 때 갈라지거나 비틀림이 적고 마찰이나 충격이 강하며 단단하다.

7. 단풍나무 : 꿈 많은 소녀의 책갈피에 끼워진 단풍은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소년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있다.

비에 젖은 후줄근한 단풍잎에서는 고개 숙인 장년의 서글픔을 읽게 되고 청소부의 빗자루 끝에 이끌려 쓰레기 통으로 미련 없이 들어가 버리는 도시의 단풍잎에서는 노년의 아픔을 느끼게 된다.

이렇듯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자기만이 갖는 단풍의 느낌이 있기 마련이다.

줄기로부터 공급받던 수분과 양분은 잎자루 밑의 떨어져가 생기면서 차단되어 낙엽의 색깔이 변한다. 날씨가 추워지며 겨울을 무사히 넘기기 위한 나무들의 생존전략의 일종으로 잎을 떨어져 내기 위한 준비인 것이다.

낙엽이 옅은노란색이나 붉은 색은 “카로티노이드”

노란색은 “크산토폴”

짙은 붉은색과 보라색, 하늘색등은 “안토시아닌”



8. 고려영산홍



영산홍같이 생기었는데 앞에 고려라는 접두사가 붙는다. 진달래과 이며 상록활엽관목이며 우리나라, 일본, 만주지역에 자생합니다. 꽃은 적색으로 피며 4~5월에 잎보다 꽃이 먼저 핍니다. 꽃잎은 깔대기형 종모양이며 끝이 5개로 갈라지고 정면의 윗부분에 짙은 홍색의 반점이 있습니다. 잎은 어긋나기하나 소지의 끝에는 모여나기하며 좁은 도관형입니다. 잎끝이 둔하고 거치가 없으며 털이 있습니다. 열매는 삭과(속이 여러 칸으로 나뉘고 각 칸에 많은 씨가 든 열매)로 9~10월에 익으며 거친 털이 있습니다.

고려 때부터 우리나라에 존재했다는 고려영산홍

진달래 :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온다.

철 쪽 : 잎과 꽃이 동시에 나오고 핀다.

영산홍 : 잎이나고 꽃이 핀다.(향기가 없다)

꽃이 피는 시기는 진달래 → 영산홍 → 철쪽

9. 무환자 (無患子)

무는 없을 무, 환은 근심, 걱정, 고통, 병, 앓다, 병들다의 환이며, 자는 자식 자 이다.

이 나무를 심으면 자식에게 화가 미치지 않는다 하여 무환자 나무라 부른다.



영어로 솜베리(soap berry) 예로부터 솜베리 나무를 심으면 집안의 우환과 아픈사람이 사라진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무환자나무” 로 부른다.

솜베리는 2000년간 아시아인과 고대 인디언들이 세정제로 사용할 만큼 천연계면활성제인 “사포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거품이 풍성하고 이물질을 씻어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자연에 배출되었을 때에는 생분해력이 높은 친환경 원료이다.



10. 망종화

24절기인 망종(보리베기 및 모내기 / 6월6일 기준) 시기 9절기에 해당되는 망종절기에 꽃이 핀다하여 망종화라 부른다.

물레나무과에 속하는 망종화는 망종화 꽃잎이 물레방아를 닮아 물레나물이라고도 부른다.

특이 할 점은 암술이 다섯 개인데 다음해 꽃이 필 때 까지 씨앗주머니와 남아 있다는 것이다.



11. 빈도리

빈도리는 층층나무목 수국과의 나무이다. 학명은 *Deutzia crenata*이다.

일본 원산이며 일본말발도리라고도 부른다. 갈잎떨기나무이며 관상수로 심어 기른다. 키는 1~3m 정도 이고, 나무껍질은 회갈색이며 줄기의 속이 비어 있다. 그래서 빈도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어린 가지는 붉은색을 띠며 나이 든 가지는 껍질이 벗겨진다. 잎은 마주나고 달걀이거나 타원 모양이며 길이 3~6cm, 폭 1.5~3cm 정도이다. 잎 끝으로 갈수록 조금씩 뾰족해지며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다. 5~7월에 피는 흰색 꽃은 가지 끝의 총상꽃차례에 달리며 고개 숙인 것처럼 밑을 향한다. 열매는 삭과인데, 지름 3.5~6mm로 동글납작하고 끝에 암술대가 남아 있다.

겹꽃이 피는 나무를 만첩빈도리(*Deutzia crenata* for. *plena* Schneid)라고 한다.

말발도리잎은 빈도리 잎보다는 약 둥그렇다. 말발도리는 씨앗이 말발굽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빈도리는 줄기속이 비었다하여 빈도리라 부르는데 (모든 도리속 줄기속은 비었다고 봄) 일본말발도리라 부른다. 만첩도리는 꽃잎이 겹으로 피는 것을 부르며, 이른봄에 피는 것은 매화도리라 부른다.



열매가 말발굽 닮았다고 우리 이름 말발도리가 붙었다는데 우리나라에는 말발도리속에 모두 30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5종 1변종이 우리나라 자생종이다. 우리 자생종 중 꼬리말발도리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고유식물이다. 우리이름은 말발도리 외에도 물참대라는 우리 자생종도 있고 일본에서 온 빈도리라는 이름도 있다. 물참대라는 이름은 뜬금없는 이름이다. 원래는 1937년 정태현 선생의 조선식물항명집에 근거하여 땡강말발도리라는 이름이었는데 1966년 이창복선생이 물참대로 바꿔버렸다.

그렇다고 뭔가 뚜렷한 근거를 제시한 것도 없어보인다. 그렇다면 일종의 횡포가 아닌가? 여하튼 물참대는 원래 강원도 방언으로서 조팝나무의 일종인 아구장나무의 이명이라고 1942년 정태현선생이 조선삼림식물도설에 기록한 이름이다.

12. 수국

본 분류군은 시에볼드(Siebold)와 주카리니(Zuccarini)가 일본에서 *Hydragea otaksa*라는 독립된 종으로 기재했었다가, 1923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아놀드 수목원의 당시 아시아 식물의 전문가였던 윌슨(Wilson)에 의해 *Hydrangea macrophylla*의 품종으로 처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부지방에 널리 심어 기른다.

꽃이 달리는 화서가 공 모양의 구형인 것이 특징이며, 정원에서 재배하는 수국 종류 중에서 가장 널리 심는 품종이다. 산수국(*H. serrata* (Thunb.) Ser.)에 비해서 자생하지 않고 재배하며, 꽃은 모두 중성꽃으로만 되어 있으므로 구분된다. 시에볼드(Siebold)와 주카리니(Zuccarini)가 오탁사(Otaksa)라는 일본 이름에 근거해서 본 분류군의 이름을 지었는데, 현재 일본에서는 오탁사라는 이름이 쓰이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원에 대해 알려진 바 없다.

최근 일본 하마마츠 의대의 이시 교수의 연구팀이 수국의 생약 성분과 효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수국의 추출물이 말라리아에 대해 저항성을 갖는 것이 밝혀졌다. 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 수국의 잎에서 추출한 페브리퓨진(febrifugine)과 아이오페브리퓨진(isofebrifugine)이 말라리아원충인 플라즈모디움(*Plasmodium*)에 감염

되었을 때 사이토키닌과 항체 형성이 증가하는 것이 나타났다. 수국은 관상용으로 주로 재배되는 식물인데 신약으로도 개발될 잠재성이 높은 식물이다.

수국의 한자 이름은 수구화(繡毬花)인데, 비단으로 수를 놓은 것 같은 둥근 꽃이란 의미다. 옛사람들이 나무 이름을 붙일 때는 특징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금세 알 수 있게 하여 감탄을 자아낸다. 수구화는 모란처럼 화려한 꽃이 아니라 잔잔하고 편안함을 주는 꽃이다. 꽃 이름은 수구화에서 수국화, 수국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학명(學名)에 어쩐지 일본 냄새가 나는 ‘otaksa’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18세기 초 서양의 문물이 동양으로 들어오면서 약용식물에 관심이 많은 의사 겸 식물학자들은 앞다투어 동양으로 진출했다. 오늘날 학명에 식물이름을 붙인 명명자(命名者)로 흔히 만나게 되는 네덜란드인 주카르느(Zucarnii)는 당시 약관 28세의 나이에 식물조사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와 있다가 오타키라는 기생과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지우개로 지워버릴 수 있도록 ‘사랑은 연필로 쓰라’는 노래가 한때 유행한 것처럼 사랑은 변하기 마련이다. 오래지 않아 변심한 그녀는 다른 남자에게 가 버렸다. 가슴앓이를 하던 주카르느는 수국의 학명에 오타키의 높임말을 서양식으로 표기한 otaksa를 넣어 변심한 애인의 이름을 만세에 전해지게 했다. 아마도 변심한 애인처럼 수국의 꽃은 처음 필 때는 연한 보라색이던 것이 푸른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연분

홍빛으로, 피는 시기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기 때문이라. 사랑의 배신자에 대한 복수로써는 멋있고 낭만적인지, 아니면 조금은 악의적인 보복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수국의 원산지는 중국이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주물러 예쁘고 달콤하게 만드는 데 소질이 있는 일본인들은 중국 수국을 가져다 이리저리 교배시켜 오늘날 우리가 키우는 원예품종 수국으로 만들었다. 불행히도 이 과정에 암술과 수술이 모두 없어지는 거세를 당하여 씨를 맺을 수 없는 석녀가 되어 버렸다.

《물명고》에 보면 수국은 처음엔 파랗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얗게 되며, 모란과 거의 같은 때 핀다고 한다. 옛 어른들은 지금 우리가 감상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원예품종 수국이 아니라 그 이전의 중국 수국을 그대로 가져다 심고 즐긴 것으로 생각된다.

수국은 중부 이남의 절이나 정원에서 널리 심는 작은 나무다. 키가 1미터 정도까지 자라며 갈잎나무이나, 녹색에 가까운 여러 개의 줄기가 올라와 포기를 이루고 있어서 나무가 아닌 풀처럼 보인다. 잎은 달걀모양으로 두꺼우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표면은 짙은 초록빛으로 광택이 난다.

초여름에 줄기 끝마다 작은 꽃들이 서로 웅기종기 모여 초록 잎을 배경으로 연한 보랏빛을 띤 동그란 꽃공이 만들어진다. 꽃마다 4~5개씩 붙어 있는 꽃잎은 꽃반침이 변한 것이다. 꽃 색깔은 자라는 곳의 흙 성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수국과 비슷한 무리로는 산에서 흔히 만나는 산수국과 울릉도에서 자라는 등수국이 있다. 이들은 모두 생식기능을 가진 정상적인 나무로서 자식을 못 낳는 수국의 처지를 동정하는 듯하다.

13. 자귀나무

초등학교 앞 노점 판의 인기품목이었던 미모사(신경초)를 건드리면 금새 벌어져 있는 잎이 닫혀버리는 모양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광합성을 할 때 이외에는 잎을 닫아 버려 날아가는 수분을 줄여보자는 대책이다.

자귀나무는 경망스럽게 건드리는 정도로 일일이 반응은 아니 하고 긴 밤이 되어야 서로 붙어 정답게 깊은 잠이 들어 버린다.

재미있는 것은 50-80개나 되는 작은 잎이 짝수로 이루어져 있어서 서로 상대를 찾지 못한 홀아비 잎이 남지 않는다. 따라서 합환수(合歡樹) 혹은 야합수(夜合樹)라 하여 부부의 금실을 상징하는 뜻으로 정월에 흔히 심는다.

그러나 대낮에는 두꺼운 구름이 끼여 아무리 컴컴해도 잎이 서로 붙지 않는다.

자귀나무 잎의 수면운동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절제된 부부생활을 하라는 깊은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도 모른다.

옛날 중국의 '두양'이라는 선비의 부인은 말린 자귀나무 꽃을 베개 속에 넣어 두었다가,

남편의 기분이 언짢아 하는 기색이 보이면 조금씩 꺼내어 술에 넣어서 한잔씩 권했다.

이 술을 마신 남편은 금세 기분이 풀어졌으므로 부부간의 사랑을 두텁게 하는 신비스런 비약으로서 다투어 본받았다 한다.

또 겨울이 되면 콩꼬투리처럼 생긴 긴 열매가 다닥다닥 붙어서 수없이 달리는데, 세찬 바람에 부딪쳐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옛 양반들의 귀에 꽤나 시끄럽게 들렸나 보다.

그래서 여설수(女舌樹)란 이름도 붙여 두었다. 물론 조선조 제일의 석학 퇴계 이항마저

'무릇 여자란 나라이름이나 알고 이름 석 자나 쓸 줄 알면 족하다'고 일갈하여도 무방하던 시절에나 붙일 수 있는 이름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하고, 황소같이 힘 센 '장고'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주위에서 중매를 많이 하였으나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어 결혼을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고는 언덕을 넘다가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집을 발견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 집 뜰 안으로 들어서고 말았다.

꽃구경에 정신이 팔려 있을 무렵 부엌문이 살며시 열리며 어여쁜 처녀가 모습을 나타냈다. 두 사람은 서로 첫눈에 반했고, 장고는 꽃 한 송이를 꺾어서 처녀에게 주며 청혼을 했다. 그 후 결혼을 했고, 몇 년간은 알콩달콩 잘 살았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읍내로 장을 보러 갔던 장고가 그만 술집 여인네에 빠져 집을 돌아오지 않았다. 장고의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다시 돌리기 위해 백일기도를 시작했다.

백일째 되던 날 밤 산신령이 꿈에 나타나서, '언덕 위에 피어있는 꽃을 꺾어다가 방안에 꽂아 두어라.' 하였다.

다음날 아침, 아내는 신령의 말대로 언덕에 올라가 꽃을 꺾어다 방안에 꽂아 두었다. 어느 날 밤, 늦게 돌아온 남편은 그 꽃을 보고 옛 추억에 사로 잡혔다. 그 꽃은 자기가 아내를 얻기 위해 꺾어 바쳤던 꽃이었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자귀나무는 사이 좋은 부부에 비유되곤 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안마당에 심어 놓으면 부부의 금슬이 좋아진다고 하여 많이 심었다.

자귀나무가 부부의 금슬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잎의 독특함 때문이다.

자귀나무의 잎은 버드나무 잎처럼 가늘며 마주 붙어 있는 겹잎이다.

낮에는 그 잎이 활짝 펴져 있다가 밤이 되면 반으로 접힌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잎이 서로 사이좋게 붙어 잔다고 생각한 것이다.

합환목(合歡木), 야합수(夜合樹), 유정수(有情樹), 합혼수(合婚樹)로도 불리는 자귀나무를 소가 잘 먹는다고 소쌀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다.



피고지기를 백일홍(百日紅, 木百日紅)이나 무궁화(無窮花)에 버금가는 자귀나무를 시골 산골에 가면 많이 만날 수 있다.

내 고향에서는 ‘짜구대나무’로도 불렸는데 비오기 전 스산하게 부는 바람에 잎이 마구 춤추듯 흔들리며 내는 소리는 대 바람 소리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사각사각” 얼마나 귀를 간질이던지

“자기 자기”, “자기야 자기야” 속삭이는 듯 하다.

잎이 모이는 몇 가지 이유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더위를 좋아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밤에는 열을 발산시키는 잎의 표면적을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려고 잎을 모은다.

둘째, 잎을 모아서 폭풍우 같은 피해에 대비하여 최선의 방어 자세를 갖춘다.

셋째, 잎을 모아서 밤새 날아드는 벌레의 침입을 막는다.

1. 동청목

겨우살이나무·동청목(冬靑木)이라고도 한다. 바닷가 산기슭의 반 그늘진 곳이나 인가 근처에서 자란다. 높이가 약 3m이다. 털이 없고 작은가지는 녹색이다. 잎은 마주나고 두꺼우며 타원형으로서 길이 3~7cm, 너비 3~4 cm이다. 양끝이 좁고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으며 앞면은 짙은 녹색이고 윤이 나며 털이 없다. 뒷면은 노란빛을 띤 녹색이며 잎자루는 길이 5~12mm이다.

꽃은 6~7월에 연한 노란빛을 띤 녹색으로 피고 잎겨드랑이에 취산꽃차례로 달린다. 조금 납작한 꽃자루에 많은 꽃이 뽕뽕이 핀다. 수술은 4개, 암술은 1개이다. 열매는 둥근 삭과로서 10월에 붉은색으로 익으며 4개로 갈라져서 붉은 가종피로 싸인 종자가 나온다. 흔히 관상용이나 산울타리용으로 심으며 약재로도 쓴다. 한국·일본·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잎이 타원형이고 길이 5~7.5cm인 것을 무룬나무(var. *macrophylla*), 잎길이 6~9cm, 너비 2~3.5cm인 것을 긴잎사철(var. *longifolia*), 잎가장자리에 흰색 반점이 있는 것을 흰점사철, 잎에 흰색 줄이 있는 것을 은테사철, 잎에 노란색 반점이 있는 것을 금사철, 잎가장자리가 노란색인 것을 금테사철, 잎에 노란색과 녹색 반점이 있는 것을 황록사철이라고 한다.



